한국축구, 아시안컵 16강 진출 가능성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서 2-2 무승부… 조 2위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 경기 막판에 터진 극적인 동점골로 희망을 이어갔다.

클린스만호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을 치러 손흥민(토트넘)의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요르단과 한국은 나란히 1승 1무(승점 4)로 승점이 같아졌다. 득실에서 요르단(+4)이 한국(+2)보다 앞서 각각 조 1, 2위에 자리했다. 최종 조 순위는 3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전은 오는 25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클린스만호는 조 1위로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하기 위해 최정예를 가동했다.

지난 18일 훈련 도중 부상으로 낙마한 주전 골키퍼 김승규(알샤밥)를 대신해 조현우(울산 HD)가 출전한 것을 빼고는 바레인전과 선발 명단이 같았다.

최전방에는 조규성(미트윌란)이 위치했고, 2선에 손흥민,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리했다.

중원에는 황인범(즈베즈다), 박용우(알 아인)이 배치됐으며, 백포라인은 이기제(수원삼성), 김민재(바이에른뮌헨), 정승현, 설영우(이상 울산)가 꾸렸다.

한국은 전반 9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상대 박스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반칙을 당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승부의 균형을 깼다. AFC 관계자에 따르면 손흥민의 득점은 이번 대회 50호골이다.

손흥민은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찰칵 세리머니'를 한 뒤 테크니컬 에이리어로 뛰어갔다. 팀 스태프로부터 김승규의 유니폼을 받은 후 유니폼을 흔들었다. 세리머니로 부상 낙마한 김승규를 응원했다.

이후 한국은 추가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운영했다. 전반 13분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상대 박스 오른쪽 부근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을 시도했다.

손흥민은 전반 29분 이재성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됐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요르단에 실점하며 위기를 맞았다.

요르단은 전반 37분 동점골을 넣었다. 코너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용우가 헤더로 자책골을 기록했다.

흐름을 탄 요르단은 역전골까지 기록했다. 전반 51분 야잔 알나이마트가 박스 앞 오른발 슈팅으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갈 길이 급해진 한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선수 변화를 줬다. 박용우, 이기제를 빼고 홍현석(헨트), 김태환(전북현대)을 투입했다.

오른쪽 측면 수비로 뛰었던 설영우가 이기제가 맡았던 왼쪽 측면 수비로 자리를 옮겼다.

또 중앙 미드필더로 뛰던 황인범이 박용우가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동했고, 황인범의 기존 포지션에 홍현석이 배치됐다.

한국은 동점골을 위해 계속 공격적으로 운영했다. 후반 9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 옆을 향했다.

후반 24분에는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조규성을 빼고 오현규(셀틱)를 투입하며 최전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이재성을 대신해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을 투입하며 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꾀했다.

리드하고 있는 요르단은 두 줄 수비로 지키는 데 집중했고 한국은 더 라인을 올렸다.

후반 33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정우영이 박스 안 왼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노렸으나 골대 위를 향했다. 후반 35분 정우영이 박스 왼쪽 측면에서 한 번 더 슈팅했지만 또 영점이 정확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두드린 끝에 동점골이 터졌다. 후반 46분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내어준 패스를 황인범이 슈팅으로 연결했다. 이 공이 상대 수비 야잔 알아랍에게 맞고 굴절되며 골대로 들어가 자책골이 됐다. /뉴시스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일반부 입상자들.(사진 일반부 남자 스키, 일반부 여자 스키, 일반부 남자 스노보드, 일반부 여자 스노보드)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성료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가 지난 17~18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18일 본 경기에서 은빛 설원을 달렸다.

본 경기는 스키는 오전, 스노보드는 오후에 진행됐다. 오후에 진행된 스노보드는 1차전과 2차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서 일반부 스키 부문에 남자 이성빈씨·여자 신다비씨가, 일반부 스노보드 부문에 남자 조규영씨·여자 이지원씨가 1위에 올랐다.

일반부 스키 1위 - 남자 이성빈씨 · 여자 신다비씨
일반부 스노보드 1위 - 남자 조규영씨 · 여자 이지원씨
중고등 스키 1위 - 남자 최현담군 · 여자 박다은양
초등부 스키 1위 - 남자 신민제군 · 여자 신민지양

일반부 스키 부문 2위에 남자 문정렬씨·여자 신선정씨, 3위에 남자 하길주씨·여자 노현진씨가 차지했으며, 일반부 스노보드 부문 2위에 남자 박지훈씨·여자 노현진씨, 3위에 남자 최재훈씨·여자 김선주씨가 차지했다.

이어 중고등부 스키 부문 1위에 남자 최현담군·여자 박다은양, 2위에 남자 이성용군과 여자 오서영양, 3위에 남자 천지우군이 차지했다.

초등부 스키 부문에서 신민제군과 신민지양이 남자·여자 각각 1위에 올랐으며, 최민겸군과 손단아양이 남자·여자 각각 2위, 박건후군과 조연서양이 남자·여자 각각 3위에 올랐다. /김재훈 기자

익산, 철인3종 도시로 각광…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조기현 시 스포츠마케팅계장, 대한철인3종협회 공로상
경기장 조성부터 각종 대회 유치 등 철인3종 발전 기여
시, 대회 · 훈련 유치 등 경기장 활용 다양화 방안 모색

익산시 웅포면에 위치한 국제 철인3종경기장이 각종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시는 조기현 스포츠마케팅 계장(사진)이 서울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유공자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은 결과다.

조기현 계장은 전국 유일의 상시 트라이애슬론 가능 구장인 익산 국제 철인3종경기장이 대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대회 유치에 힘써왔다. 특히 조 계장은 2018년 경기장 조성 당시부터 관련 업무를 맡아 책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 국제 철인3종경기장에서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 트라이애슬론 대회뿐 아니라 다양한 오픈워터 대회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경기장은 전북 철인3종 선수들의 훈련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북 선수들은 전국체전에서 각종 메달을 휩쓰는 등 역량을 뽐내고 있다.

시는 경기장 운영이 웅포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생존 수영 관련 프로그램 진행과 수상 스포츠 운영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시 트라이애슬론을 할 수 있는 익산 경기장이 선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익산 국제 철인3종경기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국 300여명 유도 선수단 부안서 전지훈련 '구슬땀'

부안군이 최근 전국 유도 선수단의 겨울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안군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주일간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유도 선수단이 계화다목적체육관에 모여 겨울철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부안군은 그동안 부족한 체육 인프라로 인해 전지훈련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민선7기부터 이어진 체육시설확충에 힘입어 이번 유도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게 됐다.

300여명의 선수단과 지도자들이 1주일간 머물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